

#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

김 남 두\*\*

## 1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통상적 구분은 일단 지리적 구분이며 따라서 우리는 서양을 일차적으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서양이 어디냐고 물을 때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어느 지점에서 오늘날의 터키를 경계로 지중해 이북과 남 북미를 포함하는 지역의 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이 지리적 경계가 원래 땅위에 그어져 있던 것이 아닌 만큼, 언제부터, 왜 이런 경계가 그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물음과 함께 우리는 곧 이 경계가 문화적 경계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서양이라는 지역이 나름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혹은 그같은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지리적 단위라고 한다면 이런 지리적 단위를 이루는 문화적 정체성의 출발과 형성 그리고 전승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의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의 주제인 ‘아낙시만드로스와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라는 제목은 이런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서양을 상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서양에 시대를 관통하는 ‘서양적 자연이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즉 시대의 차이를 넘어선 특정 자연 이해가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철학과 교수

부분적이라 한지라도 서양문화를 관통하고 있다는 진제가 없이는 서양적 자연이해라는 일반화된 언명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명은 이미 분명한 것이기보다 논의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에 속한다. 나아가 우리의 논의는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인물이 이후 이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는데 출발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를 전후하는 시기에 특정한 문화 전통이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함께 주장한다. 그리고 이후 오늘날 우리가 서양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특정한 문화전통을 자신들의 문화전통의 출발로 여기고 전승해 오면서 서양이라는 문화적 경계가 설정되며, 서양적 '자연이해'도 이 시기에 그 출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 2600년 전에 소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서양 자연관의 맥아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은 별 문제가 없을 단순한 주장은 아니다. 이 주장은 서양 자연관이 3000년 여의 긴 시기를 두고 일관된 것이라는 혹은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서양적 자연관이라는 말을 특정 문화 전통에 근거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통 내에서 다시 여러 전통이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도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의 거칠고 대담함이 바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하나 하나 답하는 일은 적지 않은 양의 세부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될 터이다. 그러나 서양이라는 지리적 경계가 문화 전통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며, 서양이라는 문화전통의 일관된 정체성과 같은 것이 찾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서양의 후대가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대 그리스의 그것에 원전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서양'이라는 개념 속에 이 같은 주장을 얼마간 정당화하는 문화지도가 개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서양이라는 문화전통에 근거한 지리적 경계의 근저에는 오늘

우리가 서양이라 경계짓는 지역이 어떤 종류의 일관된 문화적 정체를 지닌다는 자기 의식이 깔려 있으며, 이 문화적 정체성의 한 핵심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일련의 정신적 작업에 근거한 문화라는 점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경우 그와 서양근대 그리고 우리 논의의 주제인 서양 근대과학과의 연관에 관한 대단히 강력한 주장을 하는 하나의 입장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칼 포퍼는 그의 저술 『주제과 논박』의 제5장을 ‘소크라테스 이전천학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 포퍼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자신의 과학적 설명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경우로 언급하며 논의를 진행한다. 포퍼의 이런 논의는 그 자체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서양 자연이해의 맹아를 고려는 우리의 작업을 한결 용이하게 할 발판을 제공한다. 그의 이런 입장은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런 논의 이후에 이 논문은 다시 포퍼의 이 같은 입장이 편자가 말하는 ‘실정성’의 개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여기서 들어 나는 실정성의 개념이란 로고스의 실정성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로고스의 실정성이란 개념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기보다는 이 글과 아울러 앞, 뒤의 글에서 비로소 개념화되고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포퍼의 이론적 입장이 이 개념의 형성작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함께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 자연에 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직·간접 단편을 자료로서 제시하고 2) 이 자료 가운데 포퍼가 자신의 논제를 보이기 위해 들었던 단편과 그의 해석을 간략히 제시하며 3) 아낙시만드로스의 유일한 직접전승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이고 4) 이 세 논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실정성’의 개념이 포퍼의 이론적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이는 순서로 진행된다.

## 2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 아낙시메네스와 함께 밀레토스 학파 혹은 이오니아 학파라 불리는 세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탈레스의 제자로 불리는 그는(DK12A6, 이하 DK의 아낙시만드로스 항목을 가리키는 DK12는 생략) 또 탈레스의 후계자, 동료, 지인 등으로도 불리었다(A2). 밀레토스 학파 혹은 이오니아 학파라는 이름은 그들이 테이나 활동했던 이오니아 지방의 항구도시 밀레토스의 지명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그들이 학파라는 이름 아래 함께 묶여 불리는 데에는 단지 동향 출신이라는 점 이외에 그들이 주장했다고 전해지는 입장에 적지 않은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테μισ티오스의 언급에 따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스 사람들 가운데 자연에 관해(peri physeos) 써 놓은 글을 책으로 펴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A7). 그러나 이 시기의 다른 자연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책이 직접 전해지는 않는다. 후대 자연철학자들의 전승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의 책을 직접 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나 그는 1차 문헌이 전해지는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칸의 인명에 따라 말하자면,<sup>1)</sup>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자연에 관한 담론’(peri physeos historia)<sup>2)</sup>를 문헌상 처음으로 생성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은 또한 서양세계 최초의 산문 형식의 글이기도 한데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이 작업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시작하여 그리스 세계에서 운을 형태로 전승되던 서사시대에서

1) Ch. Kahn, *Anaximander and the Origins of Greek Cosmology*, Hackett, 1994, 3쪽 참조.

2) 이 말은 플라톤의 *Phaidon* 96a8에서 처음 언급된 말로 이 곳에서는 아낙사고라스를 언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산문의 시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학문이라는 새로운 인간활동의 영역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의 입장에 대한 탐구는 따라서 서양 학문 초창기의 학적 자연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며 이전의 신화시대와 다른 개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연구는 일단 자료에서 큰 제한을 받게 되는데 아낙시만드로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탈레스나 아낙시메네스의 경우 그들의 직접적인 언명을 접할 문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직접 전승이 전한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경우도 자연철학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딜스의 단편집에 오직 두 편의 짧은 직접 전승이 전해를 뿐이다. 다른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자들의 경우처럼 밀레토스 학파의 사람들에 관해 우리가 알고있는 정보는 대부분 후대 학설사기(doxographer)들의 글에 의존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특히 중요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제자인 테오프라스토스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직접인용이라 전하는 것도 테오프라스토스의 망실된 저작 『자연철학자들의 견해』(*Physikon Doxai*)에 나오는 언급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주석했던 심플리키우스가 그의 저술에서 반복한 것으로, 이년까지가 아낙시만드로스의 글인지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은 바로 그것이 남아있는 이 시기의 유일한 직접전승이라는 점 때문에 큰 가치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낙시만드로스의 자연이해에 관한 자료가 된 직, 간접 전승들을 1) 무한정한 것과 대립자들, 2) 우주론: 세계의 형성 3) 기상현상, 4) 생물과 인간의 기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이 단편들 가운데 그의 직접 전승이 포함된 DK12A9B1(자료 1)과 DK12A11(자료 17)을 해석하고 검토한다. 자료 17)에 수록된 것은 이른바 지구원통설을 주장하는 우주론으로 포퍼가 그의 『추측과 논박』의 제5장에서 다루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단편이다. 이 단편과 관

런하여 포퍼가 어떤 점에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이 오늘날 과학 이론의 구조의 선구가 된다고 주장하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비슷한 주장이 자료 1), 즉 무한정자에 관한 그의 논의에도 타당함을 밝힌다. 다시 말해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도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적 질료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한 가설 즉 포퍼의 용어로 추측이며, 이 추측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적 추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 글의 본래 목표인 바 아낙시만드로스의 작업이 어떤 점에서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자료<sup>4)</sup>

#### 1) 무한정한 것과 대립자들

##### (1) 심플리키오스(DK12A9B1)

그것[근원]은 하나이고 운동하며 무한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프락시아테스의 아들이며 밀레토스 사람으로서, 탈레스의 후계자요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한 것을 있는 것들의 근원<sup>5)</sup>이자 원소(stoicheion)라고 말하면서 근원에 대해 이 이름[‘무한정한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다.<sup>6)</sup>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근원]은 물도 아니고,

3) K.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1963, 한국어판 『추측과 논박』 I, 이한구 역, 민음사 2001, 271쪽 이하.

4) 이 자료들의 번역은 정암학당 팀의 ‘소크라테스 이전철학자들의 단편’의 미발간 화일(2003년 아카넷 출판사에서 발간 예정)을 사용한다. 이 번역의 판본은 기본적으로 DK에 기초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곳에서 달리 읽고 있으며, 단편의 선정도 DK의 그것과는 같지 않다. 파일사용을 허락한 정암학당 측의 호의에 감사한다.

5) 딜즈는 ‘원소’라는 말은 심플리키오스가 덧붙인 것이며, “무한정한 것이 있는 것들의 근원이다”가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일 것으로 본다.

6) 이 구절을 “그는 처음으로 근원이라는 이 이름을 도입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원소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물이나 원소들  
과<sup>8)</sup> 다른 무한정한 어떤 원천으로서(tina physin apeiron), 그것에서 모  
든 하늘들(hoi ouranoi)과 그것[하늘]들 속의 세계들(kosmoi)이 생겨난  
다. 그런가 하면 그것[원소]들로부터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  
[원소]들에서 [있는 것들의] 소멸도 필연에 따라(kata chreōn) 있게 된  
다. 왜냐하면 그것[원소]들은 [자신들의] 잘못(adikia)에 대한 배상(dikē)  
과 보상(tisis)을 시간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kata tēn tou chronou  
taxin)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sup>7)</sup> 이처럼 그는 보나 시적인 용어  
로 그것[원소]들을 말한다. 이 사람은 4가지 원소들<sup>8)</sup>의 상호 변화  
(metabole)를 주목하고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기체(基體)<sup>9)</sup>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  
체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음]에 분명하다. 이 사람은 생성을 원  
소의 변화(alloioumenou)로부터 설명하지 않고, 영원한 운동으로 인한  
내림자들의 분리되어나옴(apokrinomenōn)으로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  
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을 아낙사고라스 학파 사람들과 같은 부  
류에 놓았다(『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한 주석」 24, 13).

## (2) 히폴리토스(DK12A11B2)

아낙시만드로스는 프락시아테스의 아들로서 밀레토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있는 것들의 근원(archē)은 무한정한 것이라는 어떤 원천  
(physis<sup>10)</sup> tina tou apeirou)으로서, 이것에서 하늘들(tous ouranous)과

있다. 심플리키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한 주석」 150, 23에  
서 그런 주장을 한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밑에 놓이는[/기체가 되는] 무한정  
한 것(to hypokeimēnon apeiron)은 물체(sōma)인데, 대립자들(enatiotētai)  
은 그 속에 들어 있다가 분리되어 나온다(ekkrinesthai)고 말한다. 그는 밑에  
놓이는 그것을 처음으로 근원(archē)이라고 불렀다. 내림자들은 뜨거운 차가  
움 …”] 그리고 이 구절 역시 그런 뜻으로 썼을는지 모른다.

7) “그것들로부터(ex hōn) ~ 지불하기 때문이다”는 심플리키오스가 확인해주  
고 있는 토막글 B1에 해당한다.

8) 4가지 원소들의 이름은 엠페도클레스에서만 확정된다.

9) 소요화학적 개념인 ‘휘포케이메논’은 전료적 원인을 뜻한다.

그것[하늘]들 속의 세계(kosmon)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것[본성]은 영원하고, 늙지 않으며,<sup>10)</sup> 그것은 또한 모든 세계들을 둘러싼다(periechein)[고 그는 말했다]. 또 그는 생겨남(geneseōs)과 있음(ousias) 그리고 소멸(phthoras)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고 시간을 말한다. 이 사람은 무한정한 것을 있는 것들의 근원이며 원소(stoicheion)라고 만하면서 근원(tēs archēs)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여기에 덧붙여 운동(kinēsin)은 영원하며, 이 운동 속에서 하늘들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모든 이교적 교설들에 대한 논박』 1 6, 1).

### (3) 위-플루타르코스(DK12A10)

… 탈레스의 동료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한 것이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의 전체 원인(pasan aitian)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무한정한 것]에서 하늘들과 무수한 모든 세계를 일반이 분리되어 나온다(apokekrinesthai)고 말한다. 또 그는, 그것들[생성과 소멸]은 모두 돌고 돌기 때문에, 소멸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생성이 무한한 세대로부터 내내 있게 된다고 단언했다(『잡문집』 2).

### (4) 아에티오스(DK12A14)

아낙시만드로스는 프락시아테스의 아들이며 밀레토스 사람으로서 무한정한 것이 있는 것들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나며 또한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세계들(apeiroi kosmoi)은 생겨난 뿐 아니라 또한 생겨나 온 그것으로 다시 소멸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aperanton)은 숨어있는(hyphistamēnē)[실현되지 않은] 생성이 전혀 남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철학자들의 학설에 관하여』 3, 3).

10) 여기서의 ‘퀴시스’는 무엇을 산출해 내는 힘을 지닌 원전(origin)으로서의 자연을 뜻한다.

11) B2.



## (5) 네오케네스 라에르티오스(DK12A1)

아낙시만드로스는 프라시아테스의 아들로서 밀레토스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근원(根源)(archē)과 원소(stoicheion)를 무한정한 것(to apeiron)이라고 말했고, 공기나 물,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분들은 변화를 겪지만 전체는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했다(『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II, 1).

## (6) 아리스토텔레스(DK12A16)

그러나 무한정한 물체(to apeiron sōma)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소들 이상의 것(to para ta stoicheia)으로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이것들[원소들]을 산출해내는 그런 것이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무한정한 물체]는, 결코 하나이며 단순함(hen kai haploun) 수가 없다. 실로 이것[원소들] 이상의 것을 무한정한 것(to apeiron)으로 놓는 반면에, 다른 것들이 그것들[공기나 물]의 무한정함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공기나 물을 무한정한 것으로 놓지 않는[무한정한 것을 공기나 물로 상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공기는 치갑지만 물은 습하고 불은 뜨거운 것처럼, 그것들[원소들]은 서로 간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들 중 하나가 무한정하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무한정한 것은 [원소들과는] 다른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이것[원소]들이 생겨난다고 말한다(『자연학』 A4, 204b22).

## (7) 아리스토텔레스(DK12A15)

실로 모든 것이 근원(根源)(hē archē)이거나 아니면 근원에서 나왔으며, 무한정한 것(to apeiron)의 근원은 없다. [무한정한 것의 근원이 있을 경우] 그것이 무한정한 것의 한계(peras)가 될 테니까. 게다가 그것[무한정한 것]은 일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성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생겨난 것은 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소멸에도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힌 것처럼, 무한정

한 것 이외의 다른 원인들(aitias), 예컨대 사유(noun)나 사랑(philian)과 같은 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근원]의 근원은 없고, 그것이 다른 것들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periechein) 모든 것을 조종한다(kybernan)고 여겨진다. 또한 이것은 신적인 것(to theion)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낙시만드로스와 대부분의 자연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사멸하지 않고(athanaton) 파괴되지 않기(anōlethron)<sup>12)</sup> 때문이나(『자연학』 203b6이하).

#### (8) 아리스토텔레스(DK12A15)

무한정한 어떤 것이 있나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5가지[근기]에서 탐구자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sup>13)</sup> ① 시간으로부터 (왜냐하면 이것은 무한하니까). ② 그리고 크기의 분할로부터 (왜냐하면 수학자들도 무한(tō apeiron)을 사용하니까). ③ 만약 생겨나는 것의 원천이 무한하다면, 오로지 그럴 경우에만 생성과 소멸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④ 게다가 한정되어 있는 것(to peperasmēnon)은 언제나 어떤 것과 관련해서 한정되는데,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해서 언제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 한계(peras)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⑤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난제를 안겨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유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고 속에서는(en noēsei)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 수적인 크기도 하늘 바깥도 무한하다고 여겨진다(『자연학』 203b18이하).

#### (9) 아리스토텔레스(DK12A16)

밀에 놓이는 물체인 것(to on sōma to hypokeimenon)을 — 그것의 셋 중에 어떤 것이든, 아니면 불보다 더 조밀하면서도 공기보다 더 미세한 다른 어떤 것이든 —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촘촘함(pyknotēs)

12) “사멸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기”는 조각글 B3에 해당된다.

13) 여기서 말하는 ‘아페이론’의 의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분석의 결과이지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에 의한 것은 아니다.

과 성김(manotēs)에 의해서 [그 하나를] 여럿으로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산출해낸다(『자연학』 A4, 187a12).

…다른 사람들은,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 속에 있는 대립자들(tas enantiotētas)이 하나로부터 떨어져 나오나(ekkrinesthai)고 말한다.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처럼 하나와 여럿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역시 섞인 것(to migma)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분리해내기 때문이다(같은 책, A4, 187a20).

#### (10) 심플리키오스(DK12A9)

그런데 내립되는 것들은 뜨거운 것(thermon), 차가운 것(psychron), 메마른 것(xēron), 축축한 것(hygron) 등등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한 주석』 150, 24).

### 2) 우주론: 세계의 형성

#### (11) 위-플루타르코스(DK12A10)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계의 생성 과정에서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溫)과 냉(冷)을 산출하는 것(gonimon)이 분리되어 나오며, 이것으로부터 나온 구형의 어떤 불꽃이, 마치 껍질(phloion)이 나무를 감싸고 자라나듯이, 땅 주위의 공기질은 안개를 감싸고 자라난다. 이것[구형의 어떤 불꽃이 부서져 나와서 어떤 둥근 것들로 나뉘므로써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있게 되었다(strom. 2).

#### (12) 히폴뤼토스(DK12A11)

④ 별들은 불의 바퀴(kyklon pyros)로서 우주에 있는 불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공기[질은 안개]로 감싸여서 생겨난다. 또 [불의 바퀴에는] 난습을 위한 관 모양의 통로 같은 것들(porous tinas aulōedies)이 있어서 그것[통로]들을 통해서 별들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난순들이 차단될 때는 식(蝕)들이 생긴다. ⑤ 달은, 불로들의 차단이나 기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차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기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해의 바퀴는 <땅의 그것보다는> 27배 더 크고 달의 <그것보다는> 17배 더 크다>. 그리고 해는 가장 위에 있고, <달이 그 다음이며>, 떠돌지 않는 <변[행성]들과 떠도는> 변[행성]들의 바퀴들은 가장 아래에 있다.<sup>14)</sup>(ref.1 6,4-5)

(13) 아에티오스(DK12A18)

아낙시만드로스와 메트로도로스는 키오스와 크라테스 출신으로서 해는 모든 것들 보다 가장 위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달이, 이것들 밑에는 분박이별들과 떠돌이별들이 놓여있다고 말한다(II 15, 6).

(14) 아에티오스(DK12A21)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에 따르면, 해는 땅보다 28배 큰 원으로서 마차 바퀴(trochō)와 흡사하며, 불로 가득 찬 속이 빈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데, [테두리의]어떤 부분에 있는 작은 입구를 통해서, 마차 풀무의 취관(plēstēros aulou)을 통해서[바람을 불어내는 것]처럼,<sup>15)</sup> 불을 내보인다. 이것 역시 해이다(II 20, 1).

(15) 아에티오스(DK12A21)

아낙시만드로스는 해는 땅과 [크기가]간지만, [해의] 바퀴는 땅보다 27배 큰데, 그것[바퀴]바깥으로 숨구멍이 나 있고 그것[바퀴]에 의해서 [해가] 둥글게 움직인다고 말한다(II 21, 1).

(16) 아에티오스(DK12A18)

아낙시만드로스는 [별들은] 바퀴들과 구들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것[바퀴와 구]들 위에 [별들이] 제각기 자리잡고 있네고 말한다(II 16, 5).

14) < >는 밑줄이 보충한 것임.

15) 조각글 B4를 참조하라.

## (17) 히폴뤼토스(DK12A11)

(3) 땅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압도당하지 않은 채로 공중에 떠 있으며, 모든 것들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음에 의해 머물러있다.<sup>16)</sup> 그것의 모양은 구부리지고(gyron)<sup>17)</sup> 둥근바 돌기둥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의] 표면 바닥 한편은 우리가 밟붙이고 있고, 다른 편은 [우리와의]마주보고 있다(ref. 1, 6, 3).

## (18) 아에티오스(DK12A25)

아낙시만드로스는 땅이 돌기둥(lithō kioni)과 닮았다고 말한다. 표면 바닥의 \* \* (III 10, 1)

## (19) 위-플루타르코스(DK12A10)

땅은 모양이 원통형인데, 넓이와 비교해서 1/3이 될 만큼의 높이를 지닌다고 그는 말한다(strom. 2).

## 3) 기상현상

## (20) 알렉산드로스(DK12A27)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의 말에 따르면, 바다는 최초 습기의 잔류물이다. 땅 둘레의 지역은 습했는데, 이후에 습기의 일부는 해에 의해 증발되어 이로부터 바람이 생겨나고 해와 달의 회전도 생겨났다. 이 증기와 증발로 인하여 지것들[해와 달]이, 자신들에게 이것[증발]의

16) “옛 사람들 가운데 아낙시만드로스처럼, 그것[땅]은 균형(tēn homoiotēta)으로 인해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면서 배 곁의 것들과 균등한 관계에 있는 것은 위로나 아래로나 [좌·우] 어느 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반대쪽들로 동시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Aristotle, *de caelo* b 13, 295b 10)

17) 갑고리나 어깨의 구부러진 모양처럼,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퀴로스’는 땅의 둥근 구역을 가리킨다(KRS 11쪽의 오케아노스에 관한 내용 참조).

공급이 생기는 곳 둘레로 향해감으로써, 회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땅의 우묵진 지역에 남겨진 습기의 다른 어떤 일부가 바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해에 의해 네번 팔라들면서 너 적이 지며, 결국 언젠가는 마른 땅이 될 것이다. 테오프라테스가 이야기하듯이,<sup>18)</sup> 아낙시만드로스와 디오게네스가 이런 견해를 가졌다(in *Meteor.* S. 67, 3f).

(21) 히폴뤼토스(DK12A11)

㉠ 바람은 공기의 가장 미세한 증기들이 분리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모일 때 생긴다. 비는 해에 의해서 땅으로부터 위로 올려지는 증기에서 생긴다. 번개는 바람이 떨어지면서 구름을 찢을 때 생긴다(*Ref.* i 6, 7).

(22) 아에티오스(DK12A23)

천둥, 번개, 벼락, 돌풍 그리고 태풍에 관하여.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람이] 짙은 구름으로 에워싸여 압축되었다가 미세함과 가벼움으로 인하여 [에워싼 구름을 비집고] 터져 나올 때, 그 터짐이 요란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한편, 터진 곳은 구름의 갑음과 대비되어 번쩍임의 분출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III 3.1).

#### 4) 생물과 인간의 기원

(23) 아에티오스(DK12A30)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에 따르면] 습한 것에서 최초의 생물들이 가시투성이의 껍질(phloiois)에 둘러싸여 태어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 마른 것으로 나왔으며 껍질이 찢어 벗겨지자 짧은 기간동안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았다(V 19, 4).

---

18) *Phys. opin.* fr.23.

## (24) 히폴뤼토스(DK12A11)

⑥ 생물들은 해에 의해서 증반되는 <습한 것에서> 생겨난다. 사람은 다른 생물, 즉 물고기에 의해서 생겨났고, 처음에는 [물고기와] 아주 비슷했다(Ref. i 6, 6).

## (25) 플루타르코스(DK12A30)

옛 헬레의 후손들도, 시리아 사람들처럼, 사람이 축축한 실제에서 생겨났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친다. 그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를 함께 자란 동족처럼 숭배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아낙시만드로스보다 더 직진하게 천학적인 사고를 한다. 왜냐하면 [아낙시만드로스는] 그 물고기와 사람들이 같은 것들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 안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치 상어들처럼, 태어나서 길러졌고, 스스로를 구조하기에 충분해지자 그 때 밖으로 나왔으며 땅으로 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Symp. VIII, 8, 4, 730c.).

## (26) 위-플루타르코스(DK12A10)

너욱이 그는 처음에 사람은 다른 종류의 동물들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금방 자신들 스스로 삶을 꾸려가지만 사람만은 오랫동안 양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그와 간았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잡문집』 2).

## (27) 퀴소리노스(DK12A30)

빌레토스 사람 아낙시만드로스는 물고기들 혹은 물고기와 아주 닮은 동물들이 네워진 물과 땅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이들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났고 내아는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이들이 터지자 이미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다(『출생일에 관하여』 4, 7).

## 4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들을 A단편과 B단편을 구분하지 않고 1) 무한정한 것과 내림자들, 2) 우주론: 우주의 기원 3) 기상이론 4) 생명의 기원으로 나누어 반췌된 것이다. 여기에 자료로 제시된 단편들 전체에 관한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두 주제에 관해 여기서 논의한다. 두 주제 중 하나는 위의 단편 반췌문에 일련번호 21로 기록된 히폴뤼토스의 우주론에 관한 단편이며 다른 하나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실제 연명을 담고 있다고 전해지는 일련번호 5번의 아페이론에 관한 단편이다. 이 두 단편을 통해 물론 아낙시만드로스의 자연에 관한 생각의 전모가 들어 나기는 어렵다. 이 선별된 두 주제를 통해 시도하려는 바는 아낙시만드로스가 자연에 접근하는 방식과 그 특징이며 이 방식과 특징이 이후 서양 과학에 지니는 의미이다. 여기서 다루게 될 첫 번째 단편은 특히 포퍼가 그의 저서 <주주과 논박>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 단편을 해석하면서 포퍼가 제시하는 아낙시만드로스의 논의구조는 우리가 주제적으로 검토하려는 실정성 개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낸다. 물론 이 경우 실정성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폼자가 그리스적 실정성으로 구분했던 로고스의 실정성이다.<sup>19)</sup>

## 4-1.

포퍼가 아낙시만드로스의 지구원통설 또는 地球浮游說에서 논의한 구조는 무한정자에 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견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19) 폼자의 「파르메니데스와 앞의 실정성」, 『과학과 철학』 제12집, 105쪽 이하 및 이 잡지에 실린 「파르메니데스의 자연이해와 로고스의 실정성」, 『철학사상』 제15집 참조.



수 있다.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것을 논의를 통해 옹호하는 구조가 오늘날 과학의 기본구조라는 것이 포퍼의 입장이다. 이런 그의 입장은 아래 인용되는 포퍼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아낙시만드로스의 지구부유설에 관한 단편을 보고 포퍼의 주장을 들어 보자.

히폴리토스(DK12A11)

(3) 땅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압도당하지 않은 채로 상중에 떠 있으며, 모든 것들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음에 의해 머물러있다. 그것의 모양은 구부러지다(gyron) 둥글며 놀기등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의] 표면 마다 한원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고, 다른 원은 [우리와] 마주보고 있다(Ref. 16, 3).

진통적인 경험주의 인식론과 진통적인 과학사 시술은 모두, 모든 과학은 관찰에서 출발해서 시작하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론으로 나아간다는 베이컨 철학의 신화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초기철학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다. [...] 그 사상들 중 대부분은, 그리고 그중 최상의 것은 관찰과는 무관하다. [...] 모든 과학적인 진술은 가설이나 짐작 또는 추측이라는 것과 (베이컨의 것을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추측들이 결국 기정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베이컨의 신화는 부식적인 것이 된다.<sup>20)</sup>

인용문에서 포퍼는 통상적으로 신봉되는 베이컨적 경험주의가 과학에 관한 이론으로 부적절한 것이며, 베이컨의 주장과 달리 과학은 경험적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한 가설, 추측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경우라는 것이다. 포퍼는 특별히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가운데에도 가장 뛰어난 경우를 제시한다는 것을 그의 지구부유설의 경우를 통해 보여 준다.

탈레스는 지구가 배처럼 물위에 떠 있으며, 지진이란 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구가 흔들리는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포퍼에 따르

20) Popper, 앞의 책, 274쪽 이하.

면 탈레스는 배의 흔들림이나 지진을 관찰했음에 틀림없으나 그의 이론의 요점은 지구의 떠받침이나 부유상태 그리고 지진을 지구가 물위에 떠 있다는 추측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탈레스의 이론을 비판하는데 그의 비판이 포퍼의 논점을 탈레스의 경우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더 이상 탈레스와 같은 관찰에 의한 유추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낙시만드로스에 따르면 ‘지구는 [...] 어떤 것에 의해서도 떠받쳐져 있지 않으나,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등거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의 형태는 북의 형태와 같다. 우리는 그것의 평평한 표면 한쪽을 기리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다’<sup>21)</sup> 인류의 사상사를 통해 가장 내담하고 혁신적이며 가장 놀라운 생각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포퍼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생각이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론에 의해 성립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지구가 물위에 떠 있다는 탈레스의 이론은 일관성 있게 전개한다면 무한 소남에 빠진다는 점 때문에 지탱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결론은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추론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머뭇묵 이론으로는 만족한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아낙시만드로스는 더 나아가 지구가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없게끔 모든 곳에서 등거리에 있다는 공간의 내적 구조상의 이유에 기반하여 공중에 부유하고 있다는 대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아낙시만드로스의 결론은 “탈레스의 결론에 대한 사색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논증과 추상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검토”<sup>22)</sup>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포퍼의 주장이다. 포퍼에 따르면 “어떤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설명력과 그 이론이 시험과 비판을 견뎌내는지의 여부”<sup>23)</sup>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성립했다고 우리가 주장하

21) Popper, 같은 책, 275-6쪽.

22) Popper, 같은 책, 278쪽.

23) Popper, 같은 책, 280쪽.

는 실정적 사유와 이 실정성이 지니는 이론적 강제력은 추론에 근거한 가설(thesis)과 테스트를 견디는지 여부에서 비롯된다는 우리의 입장은 이와 같이 아낙시만드로스의 경우에서 포퍼가 보여주는 이론구조의 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크라테스 이진철학자들의 합리성의 토대는 ‘단순하고 대담한 질문’과 추측과 가설을 통해 제시된 입장(position)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있다는 점 또한 베르낭의 글에 기대어 서양 고대에 실정적 사유의 형성을 검토한 앞의 글의 논의와 일치하는 점이라는 사실도 함께 언급될 수 있겠다.

#### 4-2.

아낙시만드로스 주상의 이같은 실정적 구조는 잘 알려진 무한정자에 관한 그의 단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질 수 있다. 문헌적 사정에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입장을 가능한 한 분명히 하고서 간략히 그의 이론적 입장을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직접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그것[근원]은 하나이고 운동하며 무한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프락시아테스의 아들이며 밀레토스 사람으로서, 탈레스의 후계자요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한 것을 있는 것들의 근원<sup>24)</sup>이자 원소(stoicheion)라고 말하면서 근원에 대해 이 이름[‘무한정한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다.<sup>25)</sup>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근원]은 물도 아니고, 원소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물이나 원

24) 딜즈는 ‘원소’라는 말은 심플라키오스가 덧붙인 것이며, “무한정한 것이 있는 것들의 근원이나”가 아낙시만드로스의 말일 것으로 본다.

25) 이 구절을 “그는 처음으로 근원이라는 이 이름을 도입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심플라키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한 주석』 150. 23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밑에 놓이는[기체가 되는] 무한정한 것(to hypokeimēnon apeiron)은 물체(sōma)인데, 대립자들(enatiotētai)은 그 속에 들어 있다가 분리되어 나온다(ekkrinesthai)고 말한다. 그는 밑에 놓이는 그것을 처음으로 근원(arche)이라고 불렀다. 대립자들은 뜨거운 차가운 …”] 그리고 이 구절 역시 그런 뜻으로 썼을는지 보른다.

소들과는] 다른 무한정한 어떤 원천으로서(tina physin apeiron), 그것에서 모든 하늘들(hoi ouranoi)과 그것[하늘]들 속의 세계들(kosmoi)이 생겨난다. 그런가 하면 그것[원소]들로부터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원소]들에서 [있는 것들의] 소멸도 필연에 따라(kata chreōn)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원소]들은 [자신들의] 잘못(adikia)에 대한 배상(dikē)과 보상(tisis)을 시간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kata tēn tou chronou taxin)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sup>26)</sup> 이처럼 그는 보다 시적인 용어로 그것[원소]들을 말한다. 이 사람은 4가지 원소들<sup>27)</sup>의 상호 변화(metabolē)를 주목하고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기체(氣體)<sup>28)</sup>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체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음]을 분명하다. 이 사람은 생성을 원소의 변화(alloioumenou)로부터 설명하지 않고, 영원한 운동으로 인한 대립자들의 분리되어나옴(apokrinomenōn)으로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을 아낙사고라스 학파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놓았다(『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한 주석』 24, 13).

4-2-1. 단편의 말미에 씌어 있듯 이 글은 기원 후 6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 심플리키오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한 주석』에서 발췌된 것이다. 고딕으로 표시된 것이 아낙시만드로스 자신의 인명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4행에서 이미 “그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말이 있으나 그 이후의 인명이 모두 아낙시만드로스의 인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딕으로 표시된 부분에 이어지는

“이처럼 그는 보다 시적인 용어로 그것[원소]들을 말한다.”

라는 언급으로 볼 때 ‘시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는 부분이 아낙시만드로스의 것이라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시적인 용어로 표현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가 나중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일단 마로 앞의

26) “그것들로부터(ex hōn) ~ 지불하기 때문이다”는 심플리키오스가 확인해주고 있는 토막글 B1에 해당한다.

27) 4가지 원소들의 이름은 엠페도클레스에서만 확정된다.

28) 소요화학적 개념인 ‘휘포케이메논’은 질료적 원인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부정의에 대한 배상(dikē)과 보상(tisis)을 시  
간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kata ten tou chronou taxin)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시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데에는 별 문  
제가 없을 것 같다. 그 앞의 문장에 대해서는 소면이라는 말 즉  
phthora라는 개념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시기에 사용된 것이기보다 아  
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직진한 만큼 직접인용이 아니라  
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뒷 문장  
의 ‘왜냐하면’을 뜻하는 ‘gar’의 연결이 어렵게 되어 앞의 문장도 아낙  
사고라스의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같은 전체적으로 arche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아낙시만드로스를  
다루고 있다. 먼저 그가 arche를 하나로 본 사람들의 그룹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그는 물이나 공기 같은 특정 원소를 arche로 생각하지 않  
고 그것들과는 다른 무한정자(apciron)를 arche라 했으며, arche로 ‘무  
한정한 것’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언급된다. 다음으로  
이 arche에서 우주와 그 속의 사물들이 생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이어서 아낙시만드로스 자신의 말이라 생각되는 구절이 언급된다. 이  
구절에서는 필연에 따라 일어나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 이야기되고  
원소들의消張에 따른 시간의 배상 전서가 이야기된다. 이어서 아낙  
시만드로스의 이 구절이 지닌 시적 표현에 대한 언급, 또한 왜 그가  
원소를 arche 혹은 기체(hypokeimenon)로 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생각했는지에 관한 이유가 분명히 제시된다. 끝으로 생성에 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입장이 질적 변화alloiosis가 아니라 물리적 변화인  
‘분리됨’(apokrinomen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만치 아리스토텔레스  
에 의해 아낙사고라스와 같이 분류되었다는 점이 언급된다.

4-2-2. 이 단편이 전체적으로 arche로서의 무한정자와 이로부터 하  
늘이나 여타 사물들의 생성과 소멸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전체 논의의 초점은 그가 왜 특정 원소가 아니라 무한정자

를 arche로 신정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그의 무한정자라는 개념이 어떤 성격의 것이며 또한 생성과 소멸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가 간접전승 문헌을 통해 좀더 진착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sup>29)</sup>

무한정자에 관한 상이한 견해들에 관련된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의 증거들 사이의 불일치에 기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는 무한정자 관련 구절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형이상학』 1069b22(DK59A61)

“모든 것들은 있는 것에서 생겨나지만 가능적으로는 있고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은 것에서 생겨난다. 마코 이것이 아낙사고라스의 하나이고 설마 이 표현이 “모든 것은 함께”보다 낫다,<sup>30)</sup>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섞인 것(to meigma)이다.”(『형이상학』 I.2, 1069b19)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정자를 자신의 가능태의 원시질료 prime matter와 등치시키고 있다. 『형이상학』 인용문의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들이 현실태의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가능태의 것들로부터 존재하게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의 예로 그는 세계를 그 자신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기체로부터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하는데, 아낙시만드로스와 테모크리토스는 어떤 감각적 성질도 부여될 수 없는 기체를 신정하는 경우로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는 각기 arche를 球sphairos와 원시적 혼합으로 보는 입장으로 소개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 모두는 무규정적 기체를 제일원리로 설정하는 일원론자로 취급된다. 이 기체들이 전적으로

29) 아래의 무한정자에 관한 간접전승의 검토는 Il. B. Gottschalk: ‘Anaximander’s Apeiron,’ *Phronesis* 10, 1965를 참조. 제시된 자료들에 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대단히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적, 간접 전승들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과 쟁점들은 또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30) “모든 것이 가능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

무규정적이라면 그들의 arch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원료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법은 잠정적이고 유보적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그가 이 견해를 이진 철학자들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사료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2) 아낙시만드로스가 나윤통자와 함께 분류된 두 구진

“밑에 놓이는 물체인 것(to on sōma to hypokeimenon)을 — 그것이 셋 중에 어떤 것이든, 아니면 불보나 너 조밀하면서도 공기보나 너 미세한 나쁜 어떤 것이든 —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촘촘함(pyknotes)과 성김(manotes)에 의해서 [그 하나를] 이렇고로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싹틔게 낸다.”(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A4, 187a12)

“[...] 다른 사람들은,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 속에 있는 네립자들(tas enantiotetas)이 하나로부터 떨어져 나온다(ekkrinesthai)고 말한다.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시고라스처럼 하나와 여럿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역시 섞인 것(to migma)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분리해내기 때문이다.”(『자연학』, A4, 187a20)

『자연학』 187a20=DK12A16에서는 자연철학자들이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그룹은 그들의 제일원리를 하나의 기체로 설정하고 다른 것들은 이것의 변화(modification)형태로 보는 입장이며 다른 그룹은 다른 문제들을 arche로부터 ‘떨어져 나옴’(separating out)에 의해 설명하는 입장이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오는 물질들이 기체 속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낙시고라스, 엠페도클레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의 원리는 하나(to hen)라고 이야기되며 나비지 두 사람의 경우는 하나이자 여럿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되며 따라서 그들의 원래 상태는 혼합(migma)이라 이야기된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IRON을 세계가 그것에서 떨어져 나옴의 과정에 의해 생성되었지만 단일한 것(unity)으로 보았음

을 의미한다. 이는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 314a11 이하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형이상학』 1069b22에서는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아낙시만드로스를 다윈론자들과 같이 다룬다. 그러나 이것이 앞 『자연학』 구절의 구분을 부호화시키지는 않는다. 『형이상학』의 구전은 일종의 각주 성격 이상의 것은 아니며 『자연학』의 구전은 이전 논의를 종합하는 성격을 가진다.

### 3) 『자연학』 203b6ff(DK12A15)

“설로 모든 것이 근원(根源)(*he arche*)이거나 아니면 근원에서 나왔으며, 무한정한 것(*to apeiron*)의 근원은 없다. [무한정한 것의 근원이 있을 경우] 그것이 무한정한 것의 한계(*peras*)가 될 테니까. 게다가 그것[무한정한 것]은 일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성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생겨난 것은 끝을 가진 수밖에 없고, 모든 소멸에도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무한정한 것 이외의 다른 원인들(*aitias*), 예컨대 사유(*noun*)나 사랑(*philia*)와 같은 원인들을 실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근원]의 근원은 없고, 그것이 다른 것들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고(*periechein*) 모든 것을 조종한다(*kybernan*)고 이겨진다. 또한 이것은 신적인 것(*to theion*)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낙시만드로스와 대부분의 사인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사멸하지 않고(*athanaton*) 파괴되지 않기(*anōlethron*)<sup>31)</sup> 때문이다. 무한정한 어떤 것이 있다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5가지[근거]에서 탐구자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sup>32)</sup> (1) 시간으로부터 (왜냐하면 이것은 무한하니까). (2) 그리고 크기의 분할로부터 (왜냐하면 수학자들도 무한(*to apeirō*)을 사용하니까). (3) 만약 생겨나는 것의 원천이 무한하다면, 오로지 그럴 경우에만 생성과 소멸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4) 게다가 한정되어 있는 것(*to peperasmenon*)은 언제나 어떤 것과 관련해서 한정되는데,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해서 언제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 한계(*peras*)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5)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된 단제를 안겨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31) “사멸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기”는 조각글 B3에 해당된다.

32) 여기서 말하는 ‘아페이론’의 의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분석의 결과이며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에 의한 것은 아니다.



도 가장 유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고 속에서는(en noōsei)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 수적인 크기도 하늘 바깥도 무한하다고 여기진다.”(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203b18이하)

여기서 무한정한 것은 한계(peras)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Gottschalk는 불사이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부분만 아낙시만드로스의 직접 언급으로 본다.<sup>33)</sup> 그러나 히폴리투스는 아낙시만드로스 역시 이 무한자가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따라서 지배(kybernan)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인용문의 첫 구절의 논변은 아낙시만드로스의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논변이 멜리소스에서 발견된다(B2, 3).

이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에 apciron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을 두 번 언급한다. 그의 『자연철학자들의 견해』에 나오는 두 구절 가운데 하나에서 그는 아낙시만드로스를 일원본자로 서술하고 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제일원리를 원소와는 다른 무한한 기체로 생각했으며, 이것은 영원하고 늙지 않으며 모든 세계를 감싸고 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여기서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진료인만을 명명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4-2-3.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의 문헌들로부터 아낙시만드로스에 관한 다음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1) 아낙시만드로스의 arche는 일종의 질료인이며 그는 아낙사고라스의 마유와 같은 운동인을 상정하지 않았다.
- 2) 그것은 단수로 표현된 아페이론이다.

33) H. B. Gottschalk, 앞의 글, 39쪽 참조.

- 3) 그것은 신적이고,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한다.
- 4) 이것은 물체적이기는 하나 어떤 원소 혹은 알려진 기체와 동일하지 않다.
- 5) 우주는 이것으로부터 분리의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 이 점에서 그의 아페이론은 엠피도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의 원시혼합과 유사하다.
- 6) 테오프라스토스는 그를 일원론자로 분류했다.

테오프라스토스를 따라 많은 학자들이 아낙시만드로스가 단일한 구분되지 않은 기체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sup>34)</sup> 아페이론이 아낙사고라스의 씨앗(sperma)처럼 혼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아낙시만드로스가 일원론자이기 보다는 다원론자이며 그가 일원론자로 철학사에 이해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질적 변화 이론을 무리하게 자연철학자들에게 적용하여 다원론자들까지도 일원론자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테오프라스토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테오프라스토스가 아낙시만드로스를 일원론자로 다루지만 그의 문헌에 그가 무의식적으로 아낙시만드로스가 다원론을 견지했음을 보이는 구절이 DK12B1의 논란 많은 ex hon 구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낙시만드로스와 다원론자들의 차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자의 입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낙시만드로스에게 질적 변화(alloiosis) 이론을 적용한 곳이 없으며, 나원론자인 그를 일원론자로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으로부터 질적 변화가 아니라 분리(diakrimesthai)의 과정을 통해 원소들이 아페이론으로부터 생겨나오며, 다른 나원론

34) 예컨대 Heidel 'Qualitative Change in Pre-Socratic Philosophy,' *Archiv fu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19, 1906 참조.

자들과 달리 원소들이 ‘하나이며 여럿’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언명은 아주 정확한 언명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낙시만드로스의 입장을 변형시켰다고 이야기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페이론이 단일한 것으로 생각된 소지들을 다음과 같다.

- 1) 먼저 이것이 지녔다고 이야기되는 신적인 성격을 언급할 수 있다. 아페이론은 불면이며 세계를 지배한다. 자신의 불면하는 성질을 가지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기계적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관념과 이 신적인 성질이 조화되기 어렵다.
- 2) 아낙시만드로스가 사용했던 개념이 어떤 것이는 그가 사물이 생성, 소멸한다고 생각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모든 원소들이 이미 아페이론 내에 존재한다면 이 생성 소멸이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하이델은<sup>35)</sup> 생성이 재결합이요 소멸이 분해라고 하는데 이런 입장은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엠페도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에 비로소 나타나는 주장이다.
- 3) 다원론은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된 것이며 최소한의 원리로 설명한다는 원칙에서 보자면 차선의 입장일 뿐이다.

일원론적 해석이 해결해야 할 다음 문제는 다른 원소들이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주장이다. 분리된 것이라면 분리 이전에 아페이론 내에 이미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아페이론이 완전한 혼합 상태에 있어 어떤 것도 독립적 원소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러나 이 대답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35) Heidel, 앞의 논문, 343쪽 이하 참조.

36) G. Vlastos, 'Equality and Justice in Early Greek Cosmologies', *Classical Philology* 42, 1947, 171쪽 이하, F. M. Cornford, *Principium Sapientiae* 178쪽 이하 참조. 아울러 P. Seligman, *The Apeiron of Anaximander*, London 46쪽 이하의 반론 참조.

이페이론은 이 경우 그 구성요인 이전의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인데 개념적으로 불명료하다. 그 원천이 참으로 하나라면 어떻게 그것에서 다른 성전의 것들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가? 만약 원소들이 원천에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일 수 있으며 일원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생성된다는 것은 도대체 타당한 것인가? 혼합물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과 혼합물에서 생성한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다.

## 5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의 전승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를 단일 기체로 나눈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들이 무한정자에 관해 더 이상의 확실한 정보를 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낙시만드로스 자신의 문헌이 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아낙시만드로스가 ‘대립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에 그의 생각에는 당시의 통념 즉 그것들이 상호 영속적인 갈등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지속이 이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균형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아낙시만드로스 자신의 단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부터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알크마이온과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에도 나타나며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고대 의학’이 씌어질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던 생각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 1에 나타난 생각은 어떤 무한한 것 혹은 대단히 커서 한량이 없는 어떤 것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것은 이 한 원으로 편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반대되는 것 하나와도 간지 않고 그것의 성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의 원천으로만 기술되며, 영원하고 신적이다.<sup>37)</sup>

아낙시만드로스의 단편은 그러나 생성의 과정에 대해서나 관련된 변화나 운동의 성격에 관해서 그리고 이런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힘 등의 문제들에 관해 분명한 그림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아낙시만드로스의 독창성은 이같은 시원적인 것을 신화적 언어의 옷을 입히지 않고 개념화할 수 있었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sup>37)</sup>

신화에서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은 경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힘을 훨씬 넘어서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불가해한 신에 원인을 돌리는 방식이다. 생성과 소멸의 원천으로서의 무한정자에 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입장도 이것이 경험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에서, 경험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경험사태로부터 떠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설명향과 피설명향의 관계는 신화의 경우보다 훨씬 밀접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아울러 이야기될 수 있다. 무한정자는 그 개념에서 바로 한정된 것을 지시하고, 반대로 한정된 것은 무한정자 전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낙시만드로스가 무한정자에 소멸되지 않음과 나이먹지 않음의 성격을 부여했는데 이 성격들은 통상적으로 신들에게 부여되던 성격이다. 이로써 무한정자가 신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또한 신들도 무한정자의 격으로 위치지어진다. 신적인 것이 탈 인격화 될 뿐 아니라, 그것의 개념이 달라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37) 다음에 인용되는 히폴리토스의 DK12A11, B2 참조 “아낙시만드로스는 프락시아데스의 아들로서 밀레토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있는 것들의 근원(arche)은 무한정한 것이라는 어떤 원천(physis tina tou apeirou)으로서, 이것에서 하늘들(tous ouranous)과 그것[하늘]들 속의 세계(kosmon)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것[본성]은 영원하고, 늙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모든 세계들을 둘러싼다(periechein)[고 그는 말했다]. 또 그는 생겨남(genescōs)과 있음(ousias) 그리고 소멸(phthoras)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고 시간을 말한다. 이 사람은 무한정한 것을 있는 것들의 근원이며 원소(stoicheion)라고 말하면서 근원(tēs archēs)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여기에 덧붙여 운동(kinesin)은 영원하며, 이 운동 속에서 하늘들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모든 이교적 교설들에 대한 논박』 I 6, 1)

38) J. Mansfeld, *Die Vorsokratiker I*, Reclam 1983, 57쪽 이하 참조.

그의 사유가 상당한 추상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무엇에 의해서도 지지되지 않은 채 떠 있다는 그의 주장<sup>40)</sup>에서 어느 정도 짐작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포퍼가 추측과 반박이라는 과학적 사유의 대담하고 창조적인 한 예로 극찬했던 그의 이런 가정은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어 자연 현상을 설명하던 신화적 세계이해를 이미 분명하게 넘어선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기원을 공통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하면서 그의 무한정자는 신화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선행자로 알려진 탈레스의 입장이 지니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넘어서는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탈레스가 말하듯 물이 기원이라면<sup>41)</sup> 곧 그럼 물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정자라는 이 기원은 그것을 넘어 다시 기원을 물을 필요가 없는 어떤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한정된, 시간의 질서에 따라 변화하며, 소모되는 일상의 사물들과는 신명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무한정자는 이 같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며, 바다와 호수, 추위와 더위, 땅과 하늘, 기타 천지 안의 모든 것들과 대조적으로 이것은 너 나이먹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어떤 것이다. 물과는 달리 무한정자가 너 이상 그 기원을 물이갈 필요가 없는 것이듯이 너 이상 그 기원을 물이갈 필요가 없는 방식의 신명 방식을 우리는 앞에 이미 언급된 지구의 위

39) J. Mansfeld, 같은 책, 56 이하 참조.

40) DK 12A26 참조.

41) DK11A12 “탈레스는 그와 같은 철학자의 장시자로서 [근원을] 물(hydōr)이라고 말하는데(그 때문에 그는 땅이 물 위에 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아마도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과, 일 자체가 여기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의해 [모든 것이] 생존한다는 것([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원천(to ex hou)은 모든 것의 근원이나)을 보고서 이런 견해를 취하며, 마로 이런 이유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의 씨앗들은 축축한 본성(ten physin hygran)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가정을 취한 것 같나와, 물은 축축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본성의 근원이다.”(『형이상학』 A3, 983b6 이하)

지에 관한 아낙사고라스의 설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탈레스가 주장하듯 지구가 물에 떠 있다고 하면 이어서 곧 그 물은 다시 무엇에 지탱되어 있는지의 물음이 제기된다. 세계가 아무 것에도 지탱되지 않고 우주의 한 가운데 있다는 아낙시만드로스의 대답은 바로 이 같은 물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의미하게 만드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넘어 더 이상 물어갈 수 없고, 물어 갈 필요가 없을 arche를 제시하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런 대답 방식은 그의 스승이라고 전해지는 탈레스의 사유를 확실하게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주론에 근거한 가설의 설정(positio)과 논박(refutatio)을 선너뒀을 통해 과학이론이 이론으로서의 타당성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과학이론이 지니는 이런 실정적 성격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 로고스의 실정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이론은 바로 이런 점에서 즉 그 실정적 성격에서 서양 근대 과학이론을 산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양적 자연관의 맹아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